

한국인의 세대별 정치의식 분석

설동훈*

2002년 한국에서는 언론기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 지도자와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 조사를 수행하였다. 《중앙일보》가 2월에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과 일반국민의 보수-진보 노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중앙일보, 2002a, 2002b), 4월에는 '대선 예비주자들의 이념 성향 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02c). 5월에는 《조선일보》가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인의 진보·보수 이념 조사'를 실시하였고(조선일보, 2002a, 2002b), 6월에는 《한겨레》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인의 이념성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한겨레, 2002a, 2002b), 《한국일보》도 자문교수단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02). 8월에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선 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비교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02d). 2003년에도 한국인의 이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2003년에도 동일한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이념성향을 측정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조선일보, 2003a, 2003b; 한국일보, 2003).

일부에서는 이 조사들에 의해 촉발된 '2002년 한국사회의 이념논쟁'이 특정 정치인을 좌파로 몰기 위한 매카시즘(McCarthyism)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며 '시대 착오적'이라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념논쟁은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두 가지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3김 시대"의 종언이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쟁점을 찾아내려는 성격이 강하였고, 보수와 진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둘째, 이념 성향을 '주관적 자기평가' 수준뿐 아니라,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자와 조사업체 및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를 여러 차례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이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대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는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사회학회에서는 2002년 10월 『왜 다시 세대인가? 세대 사회학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움을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가졌고, 한국산업사회학회에서도 2003년 4월 『세대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가치지향을 형성하는 20대 전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시기 이후에는 그 때 갖게된 가치지향과 태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만하임(Manheim, 1952)의 세대사회학적인 관점이 다시 관심을 끈 것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세대간 진보-보수 이념 차이가 크다(이내영, 2002: 67). 특히 작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세대간 후보자의 선호 차이는 진보-보수 이념의 차이로 환원되곤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세대와 진보-보수 이념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엄밀히 규명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세대와 정치이념간의 관계를 경험적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보-보수 이념의 측정에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쟁점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그 변수들 중 하나가 ‘세대’임을 밝힐 것이다. 끝으로 세대와 정치적 이념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출신지역’과 ‘정치적 이념’ 및 ‘세대’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진보-보수 이념의 측정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인의 이념적 성향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주관적 자기평가에 의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진술들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객관적 다문항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앞의 방법은 손쉽고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들에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주관적 자기평가는 응답자에게 상당수준의 이념에 대한 선지식과 이해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문항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구의 많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이념적 성향을 측정하는 다문항 척도들을 개발해 왔다. 교육심리학자 켈링저(Kerlinger, 1984)는 사람들의 이념은 진보-보수를 ‘양극으로 하는 단일차원의 연속선상’(bipolar or unidimensional model)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성과 보수성이 직교하는 평면(orthogonal dimension)에 이중적으로 분포한다’(dualistic model)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쟁점, 예컨대 경제적 분배나 인권에 대해서는 강한 진보적 태도를 가지지만, 다른 쟁점, 예컨대 사회체제나 종교에 대해서

는 매우 보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진보-보수적 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Knight, 1999). 진보성과 보수성의 차원은 완전히 통계적으로 독립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 분포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석만·극민호·박태진·한규석(1990)은 켈린저의 이념 측정 모형을 한국 사회의 이념 측정에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잔다와 그의 동료들(Janda, Berry and Goldman, 1999)은 '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정치 이념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들은 현대 정부의 주요 기능을 질서유지, 자유와 평등의 신장,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에서 찾았는데, 질서 유지에 강조점을 둘 경우 보수로, 평등에 무게를 두면 진보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한 개인의 정치 이념을 평면상의 한 좌표로 나타내는 척도를 개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Goldman and Janda, 1997).

한국의 연구자들은 서양의 학자들이 개발한 다문항 척도들을 참고하고 한국의 독특한 현실을 고려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한국적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다문항 척도를 개발하였다. 홍두승·박용치·설동훈·이남영·한준(2002)은 한국인의 진보-보수 척도는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그들은 서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좌파-우파를 가르는 기준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미국의 보수-진보 척도를 응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¹⁾ 즉, 이념을 측정하는 잣대를 넓게 잡기보다는 좁게 잡고 다른 사회가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잣대를 개발하였다. 한국정당학회-중앙일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한겨레, 김병국·이내영-한국일보 등이 개발한 진보-보수 척도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2~2003년 여러 차례 수행된 '한국인의 이념 성향 조사'에서는 믿기 힘들만큼 문항들의 일관성이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척도(indicators)를 지수(index)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항들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켈린저(Kerlinger, 1984)가 이미 갈파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념은 매우 다양한 측면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수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서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였고, 그것이 별로 쓸모없음을 확인하였다. '성장'을 중시하면 보수 또는 우파이고, '분배'를 강조하면 '진보'라는 계급 중심의 이념 모형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행하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얻은 성과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의 핵심에 포함된 지표는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외교안보정책 또는 통일방식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삶의 질곡이 되고 있는

1) 홍두승·박찬욱·설동훈·이계오·한준(2003)은 이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분단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 통일 방식 등은 한국인이란 누구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과 광주민주화항쟁이 한국인의 이념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즉,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지표는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잘 잡았다.

<표 1>에는 2002~2003년 네 개 학회·연구단체와 신문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치 이념 관련 질문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북한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 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그 구체적 의미가 결정되는 철저히 정치 중심의 이념이다. 먼저, 조선일보 조사는 갑과 을의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다섯 개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한 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선택지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다음, 다른 조사들은 정치적 진보-보수를 나타내는 네 개의 태도 문항을 제시하여 조사대상자가 고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입장은 사상이 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태도 측정에서 '중간'의 입장이 배제된 결과, 상당수 사람들은 '억지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표 1> 한국형 정치이념 지표: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통일방식/외교안보정책

(가) 조선일보 조사

※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갑” 과 “을”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2002년)

갑	갑에 더 가깝다	다소 갑에 가깝다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소 을에 가깝다	을에 더 가깝다	을
1. 북한의 기본적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무조건 지원은 곤란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없애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3. 통일은 자유경제체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 체제든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료: 조선일보(2002a).

※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갑” 과 “을”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2003년)

갑	갑에 더 가깝다	다소 갑에 가깝다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소 을에 가깝다	을에 더 가깝다	을
1.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 자유시장경제든 사회주의경제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통일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만 이루어야 한다

자료: 조선일보(2003a).

(나) 한국일보 조사

1.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 ①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 ② 현재보다 줄여서 인도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 ③ 현재 수준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 ④ 같은 민족이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에서는 어느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
 - ① 즉각 철폐해야 한다
 - ②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한다
 - ③ 북한 태도 봐 가며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 ④ 그대로 유지한다
3. 그럼, 통일에 대한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 ① 사회·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꼭 해야 한다
 - ② 여건을 봐 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한다
 - ③ 사회·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 ④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자료: 한국일보(2002a).

주) * 값이 낮을수록 진보적이므로, 분석할 때에는 재부호화(recode)하여 방향을 바꾸었다.

(다) 중앙일보 조사

1. 귀하께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북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 ②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못하지만, 현재보다 규모를 줄여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③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므로 현 수준 정도에서 지속해야 한다
 - ④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대 단결에 도움이 되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한 대치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②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 ③ 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 ④ 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반도 주변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
 - ② 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간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 ③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탈피해 점차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④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자료: 중앙일보(2002a, 2002c).

주) 국민국회의원 조사는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대권 예비 후보 조사는 질문은 국민국회의원 조사와 동일하지만 선택지 순서가 반대로 제시되어 있다.

(라) 한겨레 조사

※ 다음의 문장을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1. 체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2.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	------------
 - 2-1. (들어본 적이 있다면) 선생님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② 북한의 변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북한의 변화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④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	--------------
 3.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자료: 한겨레(2002a).

주) * 값이 낮을수록 진보적이므로, 분석할 때에는 재부호화(recode)하여 방향을 바꾸었다.

<표 2>에는 2002~2003년에 수행한 정치적 이념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선택 범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진보-보수의 스펙트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보수” “약간 보수” “중간” “약간 진보” “매우 진보”의 다섯 가지 범주로 통일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각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 평균점수’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이념 점수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에 0점, 약간 보수적인 태도에 33.3점, 중간적 태도에 50점, 약간 진보적인 태도에 66.7점, 매우 진보적인 태도에 10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값이다. 4점척도의 경우 중간적 태도가 누락되지만 같은 요령으로 정치적 이념 점수를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적 좌표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보수적인 반면, 한겨레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한국인은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인 쪽에 서 있다. 대북지원과 통일방법/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또한, 측정 방식이 다르다 보니, 2002~2003년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상이한 진단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사는 한국인의 이념 성향이 여전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진보적인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일보 조사는 반대로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 조선일보 조사와 한국일보 조사에 나타난 이념 점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상호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각각 5점척도와 4

점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값이 근사하다는 점은 한국인의 이념적 좌표가 “다수 보수적인 편”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정치이념 지표의 기본적 특성

(가) 대북지원 (단위: %, 점)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중앙일보, 2002)
매우 보수	42.7	42.3	15.1	22.7	7.2	10.0	2.1
약간 보수	28.6	26.5	44.6	48.5	32.3	31.1	48.7
중간	10.7	6.1	-	-	-	-	-
약간 진보	11.0	11.5	23.5	20.2	40.4	45.0	28.6
매우 진보	6.9	13.6	16.7	8.6	20.1	13.9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23)	(1,041)	(998)	(978)	(1,062)	(973)	(234)
점수	29.1	33.1	47.3	38.2	57.8	54.3	55.8

주: 1. 진보-보수 점수는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보수' 0점, '약간 보수' 33.3점, '약간 진보' 66.7점, '매우 진보' 10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이다. 5점 척도에서도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고, '중간'에 50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2. 이 표에 제시된 값 중 측정 지표가 다른 것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가보안법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중앙일보, 2002)
매우 보수	28.7	29.5	12.9	12.9	12.8	9.5	4.2
약간 보수	29.8	28.1	42.8	41.6	39.3	26.1	36.3
중간	22.0	17.3	-	-	-	23.1	-
약간 진보	10.1	11.9	36.6	38.9	39.7	35.5	54.0
매우 진보	9.4	13.2	7.8	6.6	8.2	5.8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23)	(1,041)	(952)	(946)	(1,062)	(100.0)	(237)
점수	37.0	39.1	46.4	46.4	47.7	49.7	53.6

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한겨레 조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한 응답자를 중간으로 간주하여, 백분율과 진보-보수 점수를 계산하였다.

(다) 통일방법/외교안보정책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중앙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매우 보수	49.2	43.7	4.3	5.8	18.2	3.9	10.2
약간 보수	29.4	26.2	28.8	34.1	41.3	16.1	42.8
중간	11.6	10.6	-	-	-	-	-
약간 진보	5.2	8.4	51.7	45.8	20.5	40.1	47.0
매우 진보	4.6	11.1	15.2	14.3	20.0	39.9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23)	(1,041)	(1,005)	(996)	(1,062)	(954)	(236)
점수	23.7	30.7	54.3	56.2	47.4	72.0	45.6

<표 3>에는 세대별 진보-보수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대는 연령(age)과 시기(period) 및 동기집단(cohort)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설동훈·정태석, 200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을 세대로 파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필자가 분석에 사용한 조사자료가 시계열 자료가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작 2년에 걸친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 2>에서 살펴본 세 개 지표의 평균을 구하여 '정치적 이념 지수'로 삼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마다 약간 상이한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20~30대가 40대 이상보다 진보적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50대 이상과 40대 이하로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40대 이상과 30대 이하로 구분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나이가 젊을수록 진보적이다. 세대별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다.

한편, 20대와 30대의 정치적 이념 성향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2002~2003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모두 30대가 20대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1987년 민주화를 20대에 경험한 이른바 "386세대"의 상대적 진보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2년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조사 결과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20대와 30대의 이념 성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두 집단 간에는 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3> 세대별 정치적 진보-보수 점수

(가) 정치적 이념 (단위: 점)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중앙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20대	28.1	36.0	54.7	48.2	57.4	63.5	-
30대	32.2	36.9	54.9	51.5	55.0	63.1	64.8
40대	30.7	35.3	49.1	47.5	51.9	62.7	57.1
50대 이상	28.9	30.4	45.4	41.6	43.9	50.2	50.0
전체	30.0	34.3	51.0	47.0	51.1	58.6	51.7
F값	2.0	5.3**	15.8***	n.a.	29.0***	n.a.	4.0*

주) 1. 정치적 이념 점수는 '대북지원' 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방법/외교안보정책' 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이다.

2. 2002년 한겨레 조사는 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2/06/report_0604.ppt,
2003년 한국일보 조사는 news.hankooki.com/service/press/data/press/0528_2.hwp에 나타난 연령별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 p<.001 ** p<.01 * p<.05 † p<.10

(나) 대북지원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중앙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20대	29.6	34.1	55.9	42.2	61.7	58.4	-
30대	30.0	36.3	50.4	42.5	63.6	57.3	66.7
40대	29.7	34.0	43.7	37.3	59.8	52.8	57.9
50대 이상	27.7	29.3	39.9	32.3	49.5	49.2	55.0
전체	29.2	33.1	47.3	38.2	57.8	54.3	55.8
F값	0.3	2.2†	13.8***	n.a.	7.2***	n.a.	0.7

(다) 국가보안법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중앙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20대	35.3	44.3	50.5	49.0	54.6	55.4	-
30대	43.1	43.3	52.4	53.6	52.2	54.3	71.5
40대	39.1	40.5	46.4	46.9	49.9	47.8	60.3
50대 이상	31.4	31.7	37.1	36.5	38.8	42.2	51.4
전체	37.0	39.1	46.4	46.4	47.7	49.7	53.6
F값	7.9***	9.0***	17.1***	n.a.	20.7***	n.a.	5.4**

(라) 통일방법/외교안보정책

진보-보수	국민						국회의원 (중앙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2003)	한국일보 (2002)	한국일보 (2003)	중앙일보 (2002)	한겨레 (2002)	
20대	19.5	29.6	58.0	53.3	56.1	76.8	-
30대	23.3	31.2	61.1	58.1	49.1	77.7	55.6
40대	23.5	31.4	56.2	58.0	45.4	75.2	53.2
50대 이상	27.6	30.3	61.1	55.1	42.7	59.6	43.6
전체	23.7	30.7	59.3	56.2	47.4	72.0	45.6
F값	3.9**	0.15	2.2†	n.a.	15.8***	n.a.	3.9*

II. 진보-보수 이념의 결정 모형

<표 4>에는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사용한 자료는 2002년 한국일보 조사 결과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보적이고, 나이가 젊을수록 진보적이고, 학교를 오래 다닌 고학력자일수록 진보적이며, 블루칼라나 농민보다 화이트칼라가 진보적이고, 출신지역이 호남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욱 진보적이다. 즉, 출신 지역, 학력, 직업, 세대, 성별이 한국인의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것이다.

<표 5>의 회귀분석표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신지역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력·성별·세대의 영향력이 비슷비슷한 수준이며, 직업의 영향력도 발견된다. 이를 세대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출신지역·학력·성별·직업을 통제하더라도 세대가 정치적 이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4> 상관계수표

	이념	남자	세대	교육년수	화이트칼라	호남출신
이념	1.000					
남자	.153***	1.000				
세대	-.202***	-.005	1.000			
교육년수	.214***	.123***	-.530***	1.000		
화이트칼라	.162***	.190***	-.322***	.333***	1.000	
호남출신	.183***	.034	-.001	-.052	-.057*	1.000
평균	51.01	0.51	2.51	12.96	0.21	0.23
표준편차	18.59	0.50	1.13	3.22	0.41	0.42

주) 1. N=938, * p < .05 ** p < .01 *** < .001

2. 세대는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이상' 4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5> 정치적 이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b)	표준오차	(β)		
남자	4.356	1.177	.117	3.700	.000
세대	-1.819	.607	-.112	-2.997	.003
교육년수	.727	.216	.126	3.366	.001
화이트칼라	3.280	1.538	.072	2.133	.033
호남출신	8.346	1.362	.190	6.127	.000
상수	41.291	3.813		10.829	.000

$R^2 = .114$ $F = 23.9***$

주) N=938, * p < .05 ** p < .01 ***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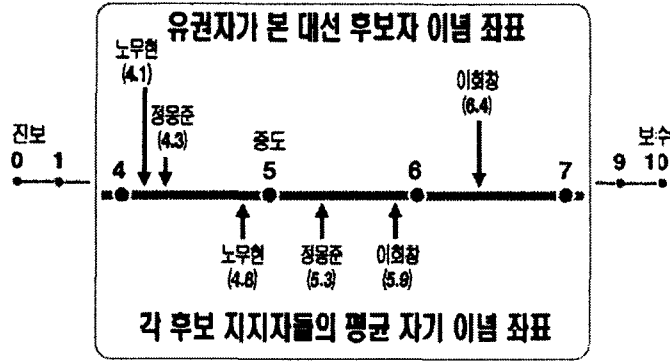
III. 대통령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치적 이념과 세대 및 출신지역

한국인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할 때 고려하는 변수는 '세대'와 '출신지역'과 '정치적 이념'이다. <표 6>은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7>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갤럽이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이다.²⁾

먼저, <표 6>을 보면, 이회창 후보는 2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고,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영남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충청권에는 약간 수도권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는 거의 지지자가 없었다. 정치적 이념면에서는 보수주의자의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를 보면, 20대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호남이다. 그는 호남에서 영남권의 16.5배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영남 출신이지만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노무현 후보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거주지역과 세대를 통제하고서도, 이러한 효과는 뚜렷하다. 즉, 이회창=보수, 노무현=진보라는 등식이 성립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그림 1]에는 노무현=진보, 정몽준=중도, 이회창=보수의 좌표가 그려져 있다.

2) 한국갤럽의 출구조사의 결과 실제 투표결과와는 달리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분석을 위하여, 표본 자료를 실제 득표율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하였다.

<그림 1> 대선 후보자와 지지자 이념성향 비교



자료: 중앙일보(2002d).

정치 이념에 따른 후보 지지는 주로 서구 정치에서나 발견되는 특징으로 알려졌다. 다운스(Downs, 1957)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기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을 선택한다.” 출신지역과 세대라는 변수를 통제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서구식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의 차이는 이념 성향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투표 성향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즉, 한국식 이념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매개로 투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도 <표 6>과 같은 내용을 보여준다.

<표 6> 투표한 대통령 후보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 이회창 후보

	B	S.E.	Wald	df	Sig.	Exp(B)
세대			116.703	3	.000	
20대	-1.724	.197	76.916	1	.000	.178
30대	-1.396	.153	82.996	1	.000	.248
40대	-.712	.150	22.507	1	.000	.491
거주지역			141.907	3	.000	
수도권	-.832	.138	36.424	1	.000	.435
충청	-1.175	.168	48.667	1	.000	.309
전라	-2.723	.240	128.844	1	.000	.066
정치적 이념	-.022	.003	63.133	1	.000	.979
상수	2.503	.196	163.014	1	.000	12.222

- 주) 1. 50대 이상과 경상도가 각각 세대와 거주지역의 기준 변수다.
 2. 정치적 이념은 매우 보수 0, 약간 보수 33.3, 중도 50, 약간 진보 66.7, 매우 진보에 100의 값을 부여하였다.
 3. 예측성공률: 71.2% -2LL=1796.7 모형 $\chi^2=377.2$ d.f.=7 p=.000 Nagelkerke $R^2=.285$

(나) 노무현 후보

	B	S.E.	Wald	df	Sig.	Exp(B)
세대			119.692	3	.000	
20대	1.684	.192	76.688	1	.000	5.389
30대	1.476	.155	90.556	1	.000	4.376
40대	.762	.154	24.412	1	.000	2.142
거주지역			151.472	3	.000	
수도권	.868	.141	38.172	1	.000	2.383
충청	1.157	.170	46.487	1	.000	3.180
전라	2.801	.234	142.876	1	.000	16.457
정치적 이념	.022	.003	65.763	1	.000	1.022
상수	-2.805	.204	189.293	1	.000	.061

주) 예측성공률: 71.7% -2LL=1790.4 모형 $\chi^2=391.8$ d.f.=7 p=.000 Nagelkerke $R^2=.294$

<표 7> 투표한 대통령 후보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	표준오차	Wald	df	Sig.	Exp(B)	Exp(B)의 95% 하한	유의구간 상한
이								
절편	3.382	.394	73.704	1	.000			
회								
정치적 이념	-.010	.006	2.811	1	.094	.990	.979	1.002
창								
세대 20대	-1.062	.391	7.357	1	.007	.346	.161	.745
30대	-.419	.347	1.461	1	.227	.657	.333	1.298
40대	-.239	.325	.542	1	.462	.788	.417	1.488
50대 이상	0(b)	.	.	0
거주 수도권	-.338	.303	1.243	1	.265	.713	.394	1.292
지역 충청	-.742	.350	4.507	1	.034	.476	.240	.945
전라	-.956	.555	2.967	1	.085	.384	.129	1.141
경상	0(b)	.	.	0
노								
절편	.567	.412	1.896	1	.168			
무								
정치적 이념	.013	.006	5.211	1	.022	1.013	1.002	1.025
현								
세대 20대	.756	.383	3.899	1	.048	2.130	1.006	4.513
30대	1.098	.349	9.876	1	.002	2.997	1.511	5.942
40대	.546	.334	2.675	1	.102	1.726	.897	3.318
50대 이상	0(b)	.	.	0
거주 수도권	.562	.309	3.303	1	.069	1.754	.957	3.216
지역 충청	.493	.353	1.946	1	.163	1.637	.819	3.271
전라	1.946	.536	13.176	1	.000	7.001	2.448	20.024
경상	0(b)	.	.	0

주) -2LL=459.7 모형 $\chi^2=407.3$ d.f.=14 p=.000 Nagelkerke $R^2=.280$

IV. 맺음말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은 세대와 출신지역, 학력, 성별, 교육 등에 의하여 결정되면서, 스스로 정치적 행동(투표)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투표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는 출신지역과 세대 및 정치적 이념이다.

“3김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에도 출신지역 변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민으로서 받아왔던 차별에 대한 저항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출신지역이 정치적으로 여전히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투표 행위’의 결정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결정요인으로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는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이질을 경험을 한 연령집단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실체다. 한국에서 세대의 중요성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 1980년대 민주화와 저항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30대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또 정치적으로 각성된 의식을 가진 20대가 자라고 있음을 이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그들은 1997년 경제위기를 20대에 겪은 세대이면서 2002년 월드컵의 희열을 주도한 세대로서, 21세기 전반기를 이끌어갈 주력군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이 독자적 실체를 갖고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과 세대로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정치적 이념’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 후보 지지자 군으로 분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념은 계급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과 학력 및 성별 등 ‘한국적 역사적 특수성’을 매개로 정치의 장에서 발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2.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계간사상』 14(3):80~102.
- 김정훈. 2003. “세대와 정치의식.” 2003년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대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3년 4월 26일. pp. 1~20.
- 박길성. 2002. “N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pp. 281~306.
- 설동훈·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계간사상』 14(3):28~52.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사상』 14(3):53~79.
- 조대엽. 2002.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pp. 249~280.
- 조선일보. 2002a. “국민의식 조사 (상).” 《조선일보》 2002·5·2, pp. 1, 8~9.
- _____. 2002b. “국민의식 조사 (하).” 《조선일보》 2002·5·3, pp. 8~9.
- _____. 2003a. “국민의식 2차 조사 (1).” 《조선일보》 2003·5·2, pp. A1, A6~A7.
- _____. 2003b. “국민의식 2차 조사 (2).” 《조선일보》 2003·5·5, pp. A1, A5.
- 중앙일보. 2002a. “의원 노선 대 해부.” 《중앙일보》 2002·2·1, pp. 1, 4~5.
- _____. 2002b. “국민과 의원들의 이념좌표 비교.” 《중앙일보》 2002·2·4, p. 4.
- _____. 2002c. “대선 예비주자 노선 대 해부.” 《중앙일보》 2002·4·12, pp. 1, 4~5.
- _____. 2002d. “대선 여론조사 분석: 지지자 이념성향 갈려.” 《중앙일보》 2002·8·14, p. 4.
-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겨울): 83~102.
- 한겨레. 2002a. “한국인의 이념성향 (상).” 《한겨레》 2002·6·3, pp. 1, 3~4.
- _____. 2002b. “한국인의 이념성향 (하).” 《한겨레》 2002·6·4, pp. 1, 4.
- 한국일보. 2002a.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상).” 《한국일보》 2002·6·7, pp. 4~5.
- _____. 2002b.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하).” 《한국일보》 2002·6·8, pp. 8~9.
- _____. 2003. “정치·사회 국민의식조사.” 《한국일보》 2002·6·9, pp. 1, 12~13.
- 함인회. 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pp. 215~248.
- 홍두승·박용치·설동훈·이내영·한준. 2002.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 2002』. 한국조사연구학회.
- 홍두승·박찬욱·설동훈·이계오·한준. 2003.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 2003』. 한국조사연구학회.

홍성태. 2003. “세대갈등과 문화정치.” 2003년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대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3년 4월 26일. pp. 36~50.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Goldman, Jerry, and Kenneth Janda. 1997. *IDEALog 3.0*. Internet; <http://court.it-service.s.northwestern.edu/idealog>.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nda, Kenneth, Jeffrey M. Berry, and Jerry Goldman. 1999. *The Challenge of Democracy: Government in America*, Sixth Edi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Kerlinger, Frederick Nichols.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Knight, Kathleen. 1999. “Liberalism and Conservatism.” Pp. 59-158 in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edited by John P. Robinson, Phillip R. Shaver and Lawrence S. Wrightsma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Mannheim, Karl.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ited by Paul Kecskemet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끝)